

* EU국가

유럽집행위원회,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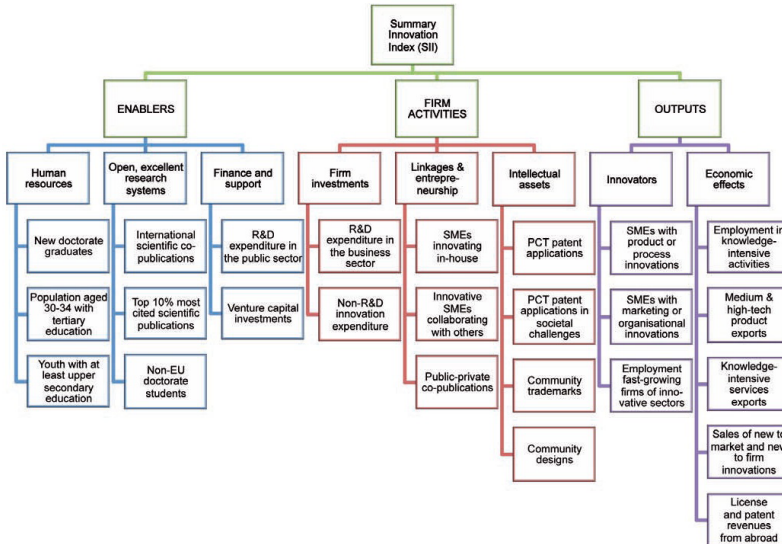
글 : 오승환 (ohsh@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혁신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이하 IUS 2015)를 발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지표를 발표하는 것은 혁신 활동을 위한 유럽연합 국

가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혁신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해 각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IUS 2015에는 유럽연합 이외에 국가들¹⁾에 대해서도 조

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그 지표와 분석 결과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Innovation Union Scoreboard의 평가 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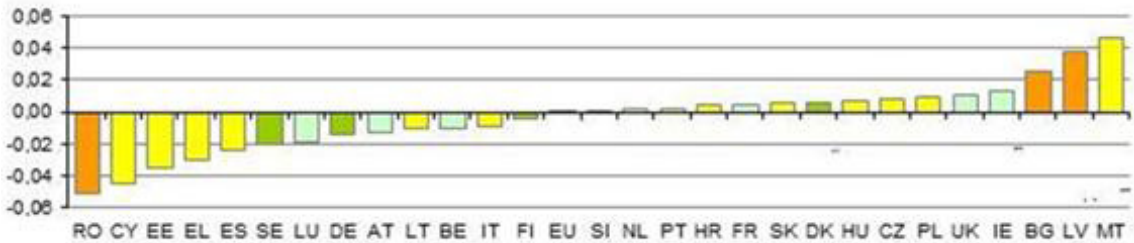


IUS 2015는 총 25개의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그림 1. 참조), 크게 보면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 기업의 혁신 활동, 혁신 성과물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으로는 인력 자원, 연구 개발 시스템의

출처: European Commission,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

1) 이들 국가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미국 등 총 1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2014년 대비 혁신 성과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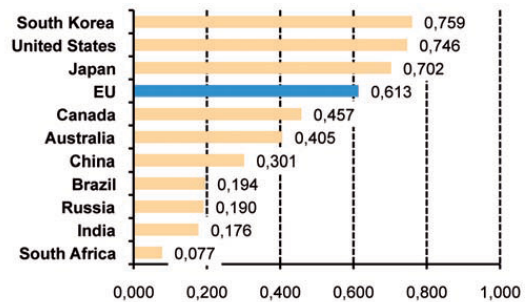


출처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4928_en.htm

개방성과 우수성, 금융과 공공 R&D 지원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의 혁신 활동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협력과 기업가 정신, 지식 자산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물로는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혁신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산출된 IUS 2015를 살펴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혁신 성과의 성장률이 1%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혁신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루마니아(RO), 사이프러스(CY), 에스토니아(EE), 그리스(EL), 스페인(ES)을 포함한 13개의 국가들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유럽의 경제 위기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과의 비교(그림 3. 참조)를 통해 전반적으로 유럽의 혁신이 미국, 일본,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혁신 국가로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

그림 3: 전 세계 주요국들과 유럽의 혁신 역량 비교



출처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4928_en.htm

고 있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물론 IUS 2015가 국가의 혁신 역량을 대표하는 지표라고는 볼 수 없다. 수치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정성적 요인(연구의 질적 성과, 삶의 질 등)들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개별국가들과의 비교가 아닌 유럽 전체 평균과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도 위의 결과에 도취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이러한 지표에 한국의 혁신 역량이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덧붙여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을 통해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혁신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